



2023. 12. 5 (화)

조선/기계/운송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02. 6454-4873  
junggha.oh@meritz.co.kr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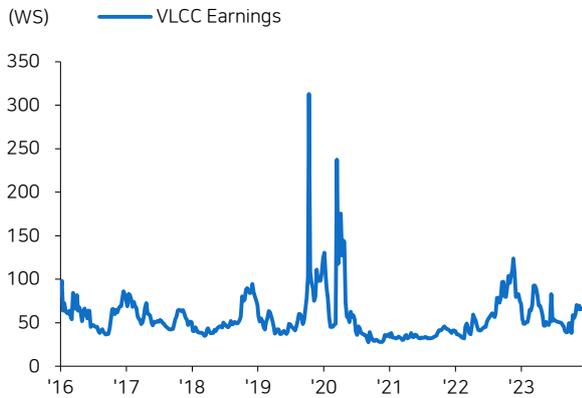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3,346.0p(+154.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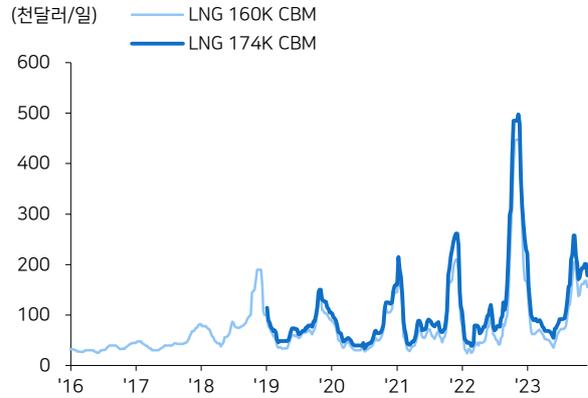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010.8p(+17.6p WoW)



VLCC Spot Rate 65.9p(+0.6p WoW)



LNG Spot 운임 155.0천달러(-12.5p WoW), 178.8천달러(-22.5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77.1p(+0.1p WoW), 148.6p(+0.3p WoW)



중국 내수 후판가격 563.0달러(+1.0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대한해운, 현대글로벌비스와 480억원 규모 장기대선 계약

대한해운이 현대글로벌비스와 자동차운반선 장기 대선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약 480억원(3,724만달러) 규모로 계약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로 알려짐. 현대글로벌비스가 원할 경우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고 언급됨. 2015년 체결한 대선계약(자동차운반선 1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고 알려짐. (연합뉴스) (<https://tinyurl.com/2sk27uca>)

### Methanol trumps LNG as newbuilding fuel of choice to date in 2023

2023년동안 발주된 신조선 중 메탄올 DF선박이 LNG DF선박보다 많았다고 보도됨. DNV에 따르면 대체연료 선박은 총 268척이 발주되었는데, 152척이 메탄올 DF였고, 112척이 LNG DF였다고 알려짐. CMA CGM은 척당 약 1,000만달러 추가가 예상됨에도 9,200TEU 컨테이너선 8척 발주 스펙을 LNG DF선에서 메탄올 DF로 변경했다고 언급됨. (Tradewinds) (<https://tinyurl.com/5cmxkn34>)

### Panama Canal disruption could linger into 2025, warns Clarksons' Steve Gordon

Clarksons에 따르면 파나마운하 정체현상이 202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보도됨. 2월부터 통항량은 기존의 절반 수준인 18척으로 제한될 예정으로 언급됨. 최대 강우 시즌은 통상 10~11월인데, 2024년 하반기 또는 그 이후에 가뭄이 완화될 수 있다고 알려짐. 선종 중에서는 LPG 시장이 가장 영향이 크다고 알려짐. (Traewinds) (<https://tinyurl.com/4zske7c4>)

### Euronav lifts VLCC newbuilding tally in China after Frontline deal

Euronav가 중국 Qingdao Beihai 조선에 319,000DWT급 탱커 1척을 추가 발주했다고 보도됨. 2026년말 인도될 예정으로 언급됨. 선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발주했던 2026년 8월~10월 인도되는 2척의 선박은 척당 1.12억달러에 발주했다고 알려짐. (Tradewinds) (<https://tinyurl.com/spbxkn6f>)

### 中 통관지연에 '요소수 대란' 재연?...물류·택배업계 "영향 제한적"

중국 통관이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차량용 요소 수출을 막으면서 '물류대란' 우려가 나왔지만 물류·택배업계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도됨. 정부가 요소수 수급 채널을 다각화한 상태로 알려짐. 일본, 호주 등에서 수입할 수 있다고 언급됨. 중국 정부의 통관 지연은 자국 내 요소 수급 등을 우선하기 위한 차원으로 언급됨. (뉴스1) ([https://t.ly/\\_8C3l](https://t.ly/_8C3l))

### 알래스카항공, 하와이안항공 19억달러에 인수 합의..."美 규제당국 제재 기조에 도전"

미국 알래스카항공이 경쟁사인 하와이안항공을 19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됨. 이번 인수는 12~18개월 내 완료될 전망으로 알려짐. 이번 합병이 미국 규제당국의 반대로 무산될 수도 있는데, 미국 규제당국이 항공사들 간에 더 많은 통합을 허용할 용의가 있는지를 살필 수 있을 것으로 언급됨. 알래스카항공 CFO에 따르면 양사 노선 중 중복 노선은 전체 좌석의 3%에 불과하다고 언급됨. (블로터) (<https://tinyurl.com/2awsd7wy>)